



유엔 주요 소식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26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국제 노인인권 전문기관으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아셈 회원국의 다양한 노인인권 의제를 다루는 국제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2014년 10월, 제10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노인인권 사업으로 센터의 설립이 제안된 후, 2016년 7월 제11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개소를 공식적으로 승인 받았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노인인권 정책연구와 교류협력을 통해 아셈 회원국이 직면한 노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센터의 목표 및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지표 개발, 모니터링 등의 정책연구 사업, △노인, 연령주의 등 인식개선과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노인인권 관련 국내외 단체, 기구 등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노인인권 관련 정책, 보고서 및 주요 동향을 공유하는 노인인권 정보제공 사업 등이 있다.

※ 제3차 아셈노인인권컨퍼런스 및 간리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일시: 2018년 9월 4일-6일

장소: 서울 포시즌스 호텔

주제: 장기요양과 완화치료, 연령차별, 노인인권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

국가인권기구 소식

아동권리위원회 제78차 회기 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78차 회기를 폐회하며 아르헨티나, 앙골라, 알제리, 몬테네그로, 러시아, 레소토, 노르웨이의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각 국의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및 기타 문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동권리위원회의 르네 윈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18년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본 회기의 활동을 치하하였다. 그에 따르면 위원회는 본 회기동안 7개국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으며, 청원권에 대한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4건의 진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청소년 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견해 제10호 개정 작업을 계속하였다. 또한 유엔의 조약기구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회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보고절차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아동권리위원회의 제79차 회기는 2018년 9월 17일 - 10월 5일 개최되며, 엘살바도르, 일본, 라오스, 모리타니아, 니제르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유엔 주요 소식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한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일 방한하여 9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방한은 2016년 8월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이후 네 번째로, 올해 10월 열릴 유엔 총회에 제출할 예정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방한을 통해 북한과의 인권 대화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 인사들을 만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을 의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모두 번영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도 연관성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도 언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위원회에는 2일 오후 방문하여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남북간 화해 분위기 속 북한인권 전반과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인 여섯 명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실태조사, 북한인권포럼, 북한인권국제세미나 등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업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협력 및 지원을 약속하였다.

기획특집 (인권메커니즘)

행사달력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약이다.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UN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1981년에서 1992년을 UN 장애인 10년(Decade of Disabled Persons)으로 정하면서 부터이다. 이 기간 중인 1987년 전문가회의에서 UN 총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협약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이탈리아와 스웨덴이 협약 초안을 제안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대신 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인 장애인에 대한 기회균 등에 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채택되었다.

이어서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협약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5개 국제장애인 NGO와 멕시코의 노력에 의해, 2001년 UN 총회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협정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위원회에서 작업은 국제장애인 NGO와 여러 국가들의 협력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07년 5월 30일 서명을 위하여 공개되었다. 그리고 2008년 5월 3일 발효하였다. 이 협약은 짧은 기간에 많은 국가가 비준하였다. 서명을 위한 개방 시에 155개국이 서명하였고 5년 동안 126개국이 비준하였다. 한국은 2008년 12월 11일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 협정에는 한 개의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가 있는데, 이 의정서도 협약과 같은 날짜인 2008년 4월 3일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2018년 7월 UN 주요회의의 일정

날짜	회의	비고
6/16-7/6	인권이사회 제38차 회기	
7/2-20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70차 회기	
7/2-27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23차 회기	
7/23-8/10	고문방지위원회 제64차 회기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황소영 2125-9884 sygraceh86@nhrc.go.kr